

일부지하철 지하작업장 근로자에 대한 금연운동 효과

한숙정¹⁾ · 최숙경²⁾

삼육대학교 간호학과¹⁾ · 도시철도공사 보건관리자²⁾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하작업장에서 대표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실시한 후 사업장 내 흡연율을 파악하고 금연운동을 주축으로 금주 및 운동캠페인과의 관련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지하작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내 음주, 운동, 흡연 행태를 파악한다. 사업장내 금연운동 실시 후 근로자의 흡연율의 변화를 파악한다. 금연 실천정도를 파악한다. 금연과 관련하여 음주, 운동 실태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지하철 지하작업장에서 대표와 기타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1개역 근로자 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매년 4/4분기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위험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금연운동협의회(<http://www.kash.or.kr>)에서 발췌한 설문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활습관 중 음주와 운동을 포함한 흡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 연구결과

대상자는 31~40세 79명(71.2%), 41~50세 20명(18.0%), 51~60세 5명(4.5%)으로 비교적 평균연령대가 젊은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상태는 93명(83.8%)이 기혼자이고, 18명(16.2%)이 미혼이었다. 근무형태는 통상근무가 14명(12.6%), 교대근무가 97명(87.4%)이었다.

흡연관련 요인 중 연도별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금연의지(p=.05)'와 '금연보조제 무료지급 시 금연프로그램 참여여부(p=.005)'에 대한 영역이었다.

먼저 대상자 중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3년 47명(42.0%), 2004년 39명(37.1%), 2005년 32명(28.8%)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또한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2003년 19명(17.0%), 2004년 20명(19.0%), 2005년 23명(54.8%)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하루 흡연량이 '1갑~2갑 사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03년, 2004년, 2005년 모두 10명으로 변화가 없으나 '반갑~1갑 사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2003년에 30명(63.8%), 2004년에 23명(59.0%), 2005년에 13명(40.6%)으로 점차 줄어든 반면, '반갑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은 2005년에 9명(28.1%)으로 약간 증가함을 보였다.

흡연기간은 '11년~20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2003년 24명(51.1%), 2004년 18명(46.2%), 2005년 14명(43.8%)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흡연기간이 '21년 이상'된다고 응답한 사람도 2003년 12명(25.2%), 2004년 10명(25.6%), 2005년 8명(25.0%)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연을 시도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3명으로 소수에 그쳤고, '금연을 시도했었으나 다시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서, 2003년 26명(55.3%), 2004년 24명(61.5%), 2005년 20명(62.5%)을 차지하였다.

금연의지에 대하여는 황이론적 모형에 따라 계획 전 단계인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연도별로 6명(12.8%), 5명(12.8%), 7명(21.9%)으로 나타났고, 계획단계인 '6개월 이내에 금연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서 2003년 23명(48.9%), 2004년 13(33.3%), 2005년 20(62.5%)을 차지하였다. 준비단계인 '2개월 내에 금연할 계획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연도별로 8명(17.0%), 9명(23.1%), 4명(12.5%)을 각각 차지하였다. '이번 금연운동에 참여하여 금연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연도별로 10명(21.3%), 12명(30.8%), 1명(3.1%)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과 2004년에 비하여 2005년도에 계획 전 단계와 계획단계에 속한 사람이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과 '이번 금연운동에 참여하여 금연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감소됨을 보였다.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를 무료로 지급한다면 '금연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연도별로 23명(48.9%), 17명(43.6%), 4명(12.5%)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연도별로 21명(44.7%), 20명(51.3%), 21명(65.6%)으로 점차 증가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도에 들어서면서 '금연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줄어들고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하거나, '참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금연방법에 대해서는 '금연연수 교육을 위한 휴가'를 가장 선호하여서 연도별로 20명(42.6%), 11명(28.2%), 9명(28.1%)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대상자에게 처음 금연운동을 시도할 때는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급하므로써 보다 적극성을 갖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성공률도 높았으나 꾸준히 금연운동을 추진해본 결과 3년째는 사업장에 주로 heavy smoker들만 남아서 이미 몇 차례의 금연시도와 실패를 경험자들로 금연 어려움을 인지하고 참여율도 낮고 참여를 하더라도 성공으로 이어지기까지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즉 사업장 내에는 이제 금연의지보다는 흡연의지가 강한 흡연자들과 흡연량이 많은 흡연자들이 남아있어서 실제 금연으로 유도하기가 해가 갈수록 더욱 어렵다. 이제는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급해도 금연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금연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참여율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장에서 꾸준히 금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